

(좌로부터 장경순 의원, 김재춘 의원, 이우석 의원)

## 축 산 물

◆지난 3월 중순 국회의 농림분과 위원회에 소속된 국회 의원들과 농·축산학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농산물과 축산물의 유통문제점 및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이것은 아직까지 농림분과위원들조차도 외면하여 왔던 축산물에 대한 관심도의 환기와 장래 국내의 주요 식량자원으로서의 축산물에 대한 행정 당국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분기점이 되리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사회 :**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너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속에서 각각 자기의 분야에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읍니다만, 현재는 각 분야가 특히 생산과 학계가, 또 학계와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된 발전을 보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학자들의 연구실에서는 고도의 농업기술이 연구되고 있는 반면 국가의 농업정책은 농본국임에도 외국의 쌀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면 농민의 생산성은 1945년대와 꼭 같은 방식에 의해 영농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책의 면에서도 농림부장관은 고미가 정책을 표방하여 쌀값의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11,000원선(가마당)을 상한선으로 하겠다는 등 서로 상충된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협조가 충분히 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여러 의원들이 여러 학자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 축산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를 넓게, 깊게 알아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

읍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유통정책과 각 생산물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전망 등에 관하여 얘기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72년도의 미곡의 수급량과, 가격에 관하여 김문식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문 :**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 해 주신 김재춘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드리 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구구하니, 단지 저의 주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들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금년도 쌀의 수급사항은 우리나라에서 2,850~2,900만석이 생산되고 71년에 도입한 것이 300만석이 아직 남아있고 금년도 도입할 것까지 합하면 3,750만석이 되어 쌀은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라고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쌀이 모자라지 않는게 꼭 쌀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쌀은 거의 대부분이 농민의 손에 있는게 아니고 상인들이 선금을 주었거나 아니면 쌀을 사둔 상태이기 때문에 쌀이 비록 상인의 손에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쌀은 상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쌀의 가격이 내려가리라고는 보기가 어렵

# 유 통 을 개 선 하 자

김 영 옥

<한국가금협회 편집부장>

**■ 때** : 1972년 3월 13일 오후 2시  
**■ 곳** : 세종호텔(서울) 사임당 홀  
**■ 참석자** : 장 경 순(국회의원 농림분과위원)  
 정 우 식(국회의원 농림분과위원)  
 김 원 태(국회의원 농림분과위원)  
 홍 병 철(국회의원 농림분과위원)  
 정 진 화(국회의원 농림분과위원)  
 박 성 호(국회의원 농림분과위원)  
 서 영 수(공화당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김 문 식(서울대 농대 교수·농박)

박 근 창(중앙대 교수·경박)  
 오 봉 국(서울대 농대 교수·농박)  
 오 세 정(건국대 축산대 교수)  
 이 용 빈(서울대 농대 교수·농박)  
 윤 효 직(건국대 축대 교수)  
 윤 희 섭(건국대 축산대학장)  
 표 현 구(서울대 농대학장·농박)

사 회 : 김 재 춘(본회 회장 국회의원)

습니다. 현재 시중의 쌀가격이 가마당 11,500원 선인데 정부로서는 정부미의 방출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가격의 양등은 저소득층의 임금과 직접 관계가 있고 이로서 수출용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며, 자연히 수출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림부의 고민은 고미가 정책이라 해서 작년가을에 정부수매가격을 8,000원선에서 사들였는데 지금 시중의 쌀값은 11,500원선이니 결과적으로는 8,000원에 쌀을 판 농민들이 보리고개인 5, 6월에는 더 비싼가격으로 쌀을 사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며 이것은 중농정책에 역행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쌀가격은 정부가 조정하여야 하며 11,000원선이 넘어가면 정부미를 방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무제한 방출이 아니고 쿠폰제에 의한 방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쌀값이 오를 가망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홍병** :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농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고미가 정책이 아니고 중간상인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보십니까?

**김문** :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미가 정책은 생산자에게 큰 도움이 못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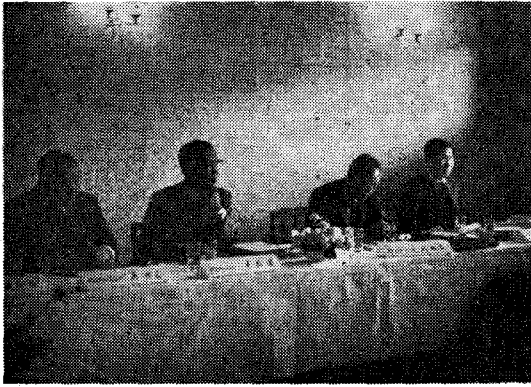
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성** : 결국은 농민이 다시 쌀을 사먹어야 되는데 더 높은 값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미가정책은 생산자나 저소득층의 소비자에게는 하등의 혜택이 없다는 얘기는 동감이며 정부미의 방출은 지금이 적시라고 생각됩니다.

**김문** :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방출상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상인의 돈벌이를 시켜줄 염려가 많습시다.

**서영** : 고미가 정책이라고 하시는데 김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느선이 적정선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또 월별에 따른 가격변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 : 저의 생각으로는 지난해의 8,750원의 수매 가격은 생산자와 비교하여 불매 적정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80% 정도의 농민이 불만이 없는 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0,500원선이상이 될때는 정부미를 방출해야 됩니다. 아마 이 정도의 선이 서민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선이 될 것입니다. 보관 감량이나 이자를 계산한다



(좌로부터 오세정교수, 오봉국교수, 박근창교수, 김분식교수)

하더라도 11,000원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월별 변동은 현재 월 쌀값이 오르는율이 매월 2.5~3%선이 되니까 쌀이 나온 2개월후부터 월 2.5~3%선에서 인상이 되면 가능하겠지요.

## 축산업의 문제점

**사회 :** 그러면 미백문제에서 의문사항이 나시는 것은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축산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도 농업정책을 얘기할때 축산문제는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식량문제를 얘기할때도 축산물에 관한 문제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오산입니다. 1975년도가 되면 축산물은 우리의 필수식품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나가지 않으면 큰 곤란이 오게 될 것이며 현재에도 한우파동, 육계파동, 우유파동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축산 전반에 관한 문제와 특히 양계분야에 관하여 오봉국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봉 :**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근시안적인 점이라는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만일 지금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제개발 5년계획이 끝난다면 그때에는 국민소득은 향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식생활도 미백중심의 곡류에서 축산물인 우

유, 고기, 계란등으로 대체될 것이니 막상 그때 가서 축산물도 외국에서 도입하여야 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우선 당장 우유문제만 해도 한참 낙농장려를 하더니 소비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변에 들어 오겠다는 우유소가 중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초지 개량이나 소비시장등 연구를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막상 눈앞에 일이 닥치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이 식량문제에서 소외당하는 것은 쌀 보리는 농민의 대부분이고 축산은 일부분이라고 해서 소외하는 것 같지만, 양계농가호수는 지금 100여만호이며 농민소득증대사업으로서의 비중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몇년간 내버려 두어도 저희들끼리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해의 육계문제는 이번 우유 파동 못지 않게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닭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고 하지만 단백질 1g을 사는 가격을 보니 쌀값과 닭고기 가격이 같았습니다. 쌀의 단백질 1g에 0.71원인데 닭고기는 1g에 0.74원이예요. 결국 지난해의 육계파동은 그 원인이 과잉생산이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도입되는 병아리부터 약간 줄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양계업체는 3~4년마다 꼭 한번씩 가격으로 인한 파동이 오는데 이를 막고 안정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양계업을 안정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해 양계에 관한 국제회의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갔을때 그곳의 양계정책가운데 계란 출하조합(Egg Marketing Board)라는 제도를 보았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닭을 전부 등록시켜서 닭 1마리에 1불의 기금을 내어 출하조합을 형성하고 정부의 지원과 1불의 세금으로 안정기금을 만들어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는 가격을 보상해주더군요. 그러면 너무 많이 기를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는 조합에서 사양수수를 지정해 주더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나라 양계농가 호수의 70%가 20~30수의 양계부업농인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은 자 부화장에서 병아리 판매시 기금을 붙인다는

등 연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회:**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유 파동에 대하여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윤교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 우유파동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의 파동은 원인이 유통구조의 불합리성때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1960년의 1, 2차 경제개발계획을 세울때 소비신장율을 추산하여 보니 1971년말쯤 가면 서울시의 하루 소비량은 55,000~60,000kg이 소비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1971년말에 보니 서울시의 하루 소비량은 22,000—25,000kg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니 유통구조의 불합리였습니다. 서울 우유협동조합의 유통채널이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유소비량을 따져 보면 약 500~550만불가량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면 130만불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외국의 우유들이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문제를 볼때 현재 과잉생산이 되었다고 해서 젖소를 들여오지 말라는 얘기는 약간 성급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과 축산물 소비를 볼때는 국민소득증대와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는 정비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450불일때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300불일 때는 피크를 이룬다고 합니다. 저는 유통구조만 정비되면 이번 우유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 한우문제도 심각하네 윤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한우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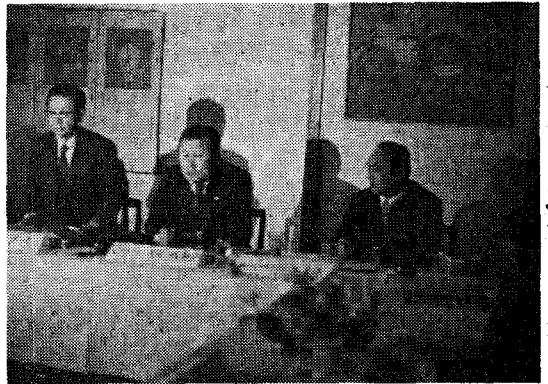
**윤:** 대략 123만두 정도되지 않을까요.

**홍:** 제가 보기에는 100만두이내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우보호협회에서 50만두 내외라고 발표를 해서 농림부장관이 이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림통계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육계 문제에 대하여

**사회:** 쇠고기나 돼지고기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육계의 문제에 대하여 오세정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 예 먼저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지요. 닭은 계란을 낳는 산란계와 고기를 생산하는 육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계는 생산원가가 대략 kg당 190~200원선인데 비하여 작년말 140원선까지 떨어져 양계인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많은 사람의 생계가 어렵게 되었어요. 아까 오봉국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전국의 양계농가호수가 약 100여만호인데 대부분이 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생산과잉이라는 결론이 내려서 업계에서는 자체조절을 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힘만



(좌로부터 박성호의원, 홍병철의원, 서영수씨)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줘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이 병아리들을 생산하는 종계를 외국에서 들여 오는데 그 종계도입수수를 조절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김의원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가금협회에서 년도별로 점차 도입수수를 줄여서 안정된 양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농림부가 이에 적극 협조하여 준다면 아마 과잉생산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계의 도입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국산 종계의 육종문제입니다. 지금 국내 종계들의 능력을 보면 그 성적이 외국계에 비하여 많이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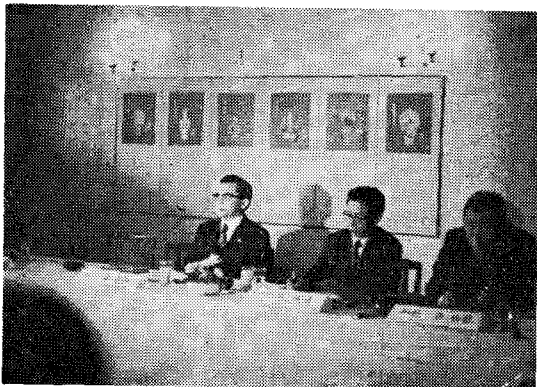
어지지 않으니 국가에서 육종자금을 지원하여 국내산 종계의 육종을 해 나간다면 몇년내에 틀림 없이 성능이 우수한 국산계를 작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태어 의화를 쓰면서 외국계를 들여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양계업을 안정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양계진흥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계업의 안정을 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식량자원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양계업은 항상 심한 파동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양계진흥법에 의한 양계산물 안정기금의 확보로 계란과 육계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고 이 기금에 의한 육종과 유통구조의 개선 및 국내사료자원의 개발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농림부에서 양계인에게 통계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큰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아무리 신빙성이 없다 하지만 국가의 통계에 의하여 모든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확한 통계가 밑받침이 되어야할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문제가 여러 의원들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고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양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용빈 교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농업에서 소외된 형편에 있고 양돈은 이 축산업에서 마저 소



(좌로부터 정진화의의원, 박성호의원, 홍병철의원)

외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원상입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양돈업은 성장산업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돈산업에서는 몇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 각 양돈관계업체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돈생산과 등록단체가 연결이 안되고 배부와 생산사가 연결이 되지 않는속에서 계획이나 질서가 전혀 없어서 이에 대한 장기 진흥계획등을 전혀 세울 수가 없다는데에 그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업양돈농가는 전체량의 1/15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이 농가에서 1~2두씩 기르는 실정이므로 유통조직이 없고 뒤고가 없어요. 그래서 돈육값이 좀 오르면 누구나 다 기르고 떨어지면 전부 팔고 해서 계획적인 생산이란 생각도 못할 지경이지요. 아마 축산업중에서 가장 낙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 축산분야에 관하여는 대강 얘기들을 들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의원나시는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다시 토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의 얘기를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이 유통구조상의 결함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윤효직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효:** 과거 우리나라의 농업경제정책은 자본주의 과정에서 농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노임을 낮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의 축산물이나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보면 너무 복잡하고 체계가 없습니다.

지난번 양계부문의 유통과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계란의 유통마진이 33%, 육계는 49%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마진입니다. 마케팅서비스는 이 마진의 5%에 불과하고 95%는 상인의 이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유통상의 가장 큰 문제는 유통채널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농업협동조합이나 정부가 직접 이 유통 문제에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구조의 단순화는 곧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등급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가문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생산자는 더

육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정보에 늦  
거거든요.

세번째의 문제점은 계절별 가격의 변폭이 너  
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계란은 35%  
의 가격변폭이 있고 육계는 21%의 변폭이 있습  
니다. 이는 정부가 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이의 변  
폭을 줄여야 됩니다.

또 한 유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  
장 중요한 것은 시장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  
라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관이 하나도 없습  
니다. 그나마 하는데가 가금협회정도 밖에 없습  
니다. 저는 농협과 각 신문사, 정부가 통괄해서  
농림부내에 유통국을 새로 세워서 한다고 생각  
합니다.

**홍병** : 그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정부에서 임  
기응변식으로 유통담당관제도를 두고 장관 역시  
그 문제에 대해 꼭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교수님의 의견중에서 이 통  
계나 정보문제는 저 자신도 동감입니다. 무엇보다  
이 통계자료 특히 신빙성있는 통계자료는 꼭  
수집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겠다는데  
는 같은 의견이고 그렇게 되도록 힘껏 노력을 해  
봅시다.

**사회** : 양곡과 축산에 대해서만 얘기들이 있었  
는데 이제 소채에 대하여 최근 복귀가 일본에 소  
채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복귀가 하는 것을 왜 우  
리가 못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를 표박사님께  
서 말씀해 주십시오.

**표현**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도 가능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나 토질등에서) 그러나 문제  
는 일본의 정치적인 문제와 가격입니다. 우리나  
라는 생산원가 이하로는 수출할 수 없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러나 복귀는 집단농장등에서 생산  
하여 덤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  
이 있습니다. 만일 가격만 맞는다면 우리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우리나라도 몇  
가지 고려야 될게 있는데 첫째 포장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상인들이 포장하는 것은 수입국에 가  
서 보면 꼭 불합격품이 나오곤 합니다. 우리나  
라 상인들의 상도의 문제입니다. 외국에 수출  
하는 상품의 포장이나 규격등은 꼭 정부기관이

나 농협등에서 지원, 주관하여야 합니다. 그동  
안 일본에서 상원의원등이 여러번 왔으나 소채  
수출문제에 대하여 별 진척을 보지 못하고 말았  
습니다.

**사회** : 현재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얘기들이 오  
고 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결론들을 내려 보십  
시다. 축산문제와 양계문제에 대해서 오봉국 선  
생님과 윤효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봉** :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쌀문제  
이겠으나 여러번 말씀드렸드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산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습  
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76년 도에는) 우리  
나라도 다시 계란과 닭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은  
명백합니다. 몇가지 결론을 내리면, 첫째 우리  
나라의 농림통계가 좀 더 정확해야 되겠다는 것  
을 얘기하고 싶고 폐지나 닭과 같이 증식이 빠  
르고 생산기간이 짧은 것은 양적인 증대보다 질  
적인 향상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겠다는 것입  
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위 생산성의 향상에 힘  
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는 1년에 40~45만수의 닭이 외국에서 들여 오  
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이 들고 젖소로 따  
지면 약 2,500두가 들어 오는 것과 같은데 앞으  
로 이것을 외국에서 들여 오는 것은 제한해야 되  
겠지만, 국내의 종재개량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  
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민간이나 국가기관에서  
하던 5년간 10억만 육종을 위하여 투자를 하면  
년 총 14억이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 좋은 증  
거가 이번 일본에서 “국립농민 1호”라는 일본의  
닭을 육종하였었습니다. 기간이 약 6년걸렸습  
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 약 6년동안의 시간과  
그 정도의 예산만 뒷받침되면 외국계를 구매  
하여오지 않아도 될 만한 국산계를 육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계도 일본의 경우는 몇  
개의 대재벌이 수직통합을 이루어서 가격조절이  
가능함으로 농민이 손해보는 수가 많은데 우리  
나라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면 지금이 적시입  
니다. 대재벌이 수직, 통합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  
라 농민들의 출하조합 즉 수평통합을 통하여 농  
협이나 정부가 참여한 출하조합(Board)을 형성  
하여야 하며, 안정기금의 설치는 시급하다고 하  
겠습니다. 사료자원의 개발문제는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 매년 상당한 목야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쓰고 있는 목야지를 보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실적에만 너무 치중하여 개간면적만 늘였지 사후관리에는 등한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야지 조성에는 산림법보다 목야지 조성에 관한 법규가 우선하여야 됩니다.

**윤효 :** 축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하여는 첫째 유통구조의 변혁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marketing survey)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유통구조의 각 경로를 단순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등급제를 필연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정부가 획일적인 도량기구를 지정하여 전국이 공히 같은 도량기구를 사용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축산물의 계절별 변동을 막기 위하여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순위에 의한 보상책을 세워야 되고 쇠고기값과 돼지고기 가격을 협정가격에 끌어 놓으므로써 쇠고기의 밀도살 현상을 막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대체 그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출하조합을 형성하고 유통국을 설치하여 시장정보를 강화하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생산정책에서 유통정책위주로 전환시켜야 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병 :** 오늘 여러가지로 어둡고 궁금했던 면이 여러 교수님들의 가르침으로 해서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것은 사회가 아무리 혼탁해도 대학교수와 법관만 호려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구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좋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정우 :** 농림분과위원장이신 전휴상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재춘의원께 재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년전 대통령과하께서도 연구실에서 거두어 진 연구실적들이 실제 생활에 응용되어야만 그 연구는 종결이 되는 것이고 묵묵히 그 연구실에서 연구에만 열중하는 학자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가장 아끼는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적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연구가 정책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유용하게 발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산학협동의 씨앗을 맺도록 합시다.

**사회 :**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공해주신 학문적 연구를 활용하여 필요한 법은 새로 제정하고 필요없는 것은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이런 모임이 자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각 의원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수시로 각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어요니, 많은 도움을 주시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마치면서,

상기 좌담회는 7시간에 걸친 장기적인 좌담회로서 그 내용도 위에 실린것 이외에 농업전반에 걸친 방대한 량이었다. 그러나 본지에서는 축산 특히 양계에 관계된 것만 발췌하였다.

(문책 재기자)

**\* 양계가의 영원한 친구**

**월 간 양 계**

1년분 : 1,500원

반년분 : 800원

**한 국 가 금 협 회**

중구 초동 18-11 Tel 26 : 0321, 4692

구독하실분은 소액환을 떼어 동기로 우송해 주십시오.